

## 사랑의 哲學

### 안 병 옥

〈숭전대학교 교수〉

인간의 욕구 중에서 애정의 욕구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이 욕구가 充足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만큼 애정의 욕구는 중요하다. 이 욕구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요, 또 하나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다. 전자는 내가 愛情의 주체가 되려는 것이요, 후자는 내가 애정의 客體가 되려는 것이다. 어린애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는 누구를 사랑하고 싶은 욕구는 적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다. 이것처럼 중요한 複合語가 없다. 사랑을 愛, love(英), liebe(獨), amor(羅)라고 한다. 희랍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개가 있다. 아가페(agape)와 에로스(eros)와 필리아(philia)다.

철학과 思索의 전제였던 희랍인들은 인간의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즉 사랑의 대상에 따라 사랑의 性질과 內容과 특색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옳은 洞察이요, 깊은 把握이다. 神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했고 젊은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했고, 넓은 의미의 人間的 友情을 필리아라고 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다.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빵은 육체의 양식이요, 사랑은 정신의 양식이다. 아니 全人格의 양식이다. 빵은 결코 정신의 양식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정신이요, 정신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빵과 사랑의 두가지 양식이 다 같이 필요하다.

빵이 부족할 때 우리의 육체는 '영양불량의 病'에 걸린다. 사랑이 부족할 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애정결핍에서 오는 병에 걸린다.

애정이 너무 결핍되면 냉정하고 利己的이고 비뚤어진 인간이 된다. 그는 사회에 대해서 복수심이 생기고 暴力衝動的 奴隸가 되어 反社會的 犯罪者가 되기 쉽다. 애정이 너무 過多하면 독립심이 적고 依存的 정신이 강한 나약한 인간이 되기 쉽다.

제 발로 서서 제 힘으로 살아가는 成熟한 自我를 형성하지 못한다. 花草에 거름을 너무 많이 주어도 병이 생기고 너무 안 주어도 병이 든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缺乏도 병을 낳고 사랑의 過剩도 병을 낳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中庸之道다.

고아들이 왜 빈자라로 전락하기 쉬운가. 인격의 成長期에 가장 중요한 애정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성격에 병이 생긴 것이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이 간절한 命題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도 안된다.

행복과 사랑은 새끼의 두 호랑이처럼 밀접한 不可分の 관계를 갖는다.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을 논하는 것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논하는 것과 같다.

“사랑은 인간의 主成分”이라고 철학자 피히테는 말했다. 물이 우리의 몸의 주성분을 이루는 것처럼 사랑은 인간 存在의 주성분을 이룬다.

소금에서 짠맛을 제거하면 소금이 아니다. 사랑에서 단맛을 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고추에 매운 맛을 빼면 고추가 아니다. 사람에서 사랑을 빼면 虛無해 진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고, 꽃이 없는 花園과 같다.

인생에서 사랑을 제거하면 풀 한 포기 없는 사막처럼 허무하고 荒涼해진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 前書 13章에서 사랑의 福音을 강조했다.

“사랑은 오래 참고 仁慈하며, 사랑은 妬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제 생각만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怨恨을 품지 아니하며 義아닌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바른 것을 기뻐하고 사랑은 법사에 참으며 법사에 믿으며 법사에 바라며 법사에 견디나니라... 그런 즉 믿음과 所冀과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글은 사랑에 관한 최고의 文章이요, 最深의 철학이다.

등서고금의 위대한 종교와 철학이 모두 사랑을 강조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랑이 인생의 至大至高至上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여러가지 사랑이 있다. 남녀간의 애정에서부터 父母兄弟간의 血族愛, 친구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 여러가지의 사랑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사랑이라면 우리는 먼저 젊은 남녀간의 뜨거운 애정을 생각한다. 그것은 아마 사랑의 代號일 것이다. 많은 학자와 사상가들이 사랑의 본질과 속성에 관해서 논했다. 사랑의 질을 누구보다도 깊이 파헤친 것은 <自由에서의 逃避>의 名著를 쓴 「에리히 프롬」이다. 그는 1956년에 <사랑의 藝術, the art loving>을 썼다.

사랑은 아름다운 情緒요, 甘味로운 감정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것이 사랑의 일반적 通念이다. 그러나 「프롬」의 견해는 다르다. 그의 洞察은 깊고 그의 생각은 獨創적이다. 그는 사랑을 인생의 힘찬 창조적 활동으로 보았다. 사랑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인간의 생활과 존재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창조적인 힘이다.

그는 사랑의 속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관심(care, concern)을 갖는 것이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소독을 해주고 김을 때어 준다.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아무

런 관심이 없다.

사랑과 관심은 正比例한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관심이 크고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심이 적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안갖는다면 사실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문학을 사랑하면 문학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에 대해서 至大한 관심을 갖는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깊은 적극적 관심을 갖는 것이다. 사랑은 본체만체 하지 않는 것이다. 관심의 정도를 결정 한다.

둘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責任(responsibility)을 느끼는 것이다.

책임을 영어로 레스폰시빌리티라고 한다. 이 말은 레스폰드에서 왔다. 레스폰드는 대답한다. 또는 應答한다는 뜻이다. 독일어도 마찬가지다. Verantwortung은 대답한다(antworten)에서 온 말이다. 책임을 느낀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대답하는 것이다. 어린애가 몸이 아파서 엄마를 찾으면 어머니는 곧 대답한다. 어머니는 곧 달려가서 의사를 불러오거나 약을 사온다.

책임을 부르는데 대답하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빠져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당장 달려가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호국의 역군이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건강에 대한 책임, 생활에 대한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 결혼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사랑과 책임은 비례한다.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느냐를 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다. 무책임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세째로 사랑한다는 것은 尊重 또는 존경(respect)하는 것이다.

사랑은 남을 지배하거나 抑壓하거나 착취하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를 존중하고 인격과 생각과 個性을 존중한다.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느냐를 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알 수 있다.

사랑은 自己中心의 他人支配가 아니다. 사랑

은 상대방 중심이다. 내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될수록 존중해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利他主義다.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다. 사랑은 명령하지 않는다. 사랑은 君臨하지 않는다. 사랑은 독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인격과 人權과 생명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다.

비례로 사랑한다는 것은 理解(Understanding)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사랑은 이해를 深化시키고 이해는 사랑을 심화시킨다.

사랑이 없을 때 이해심은 부족하고 이해심이 적으면 사랑도 부족하다. 사랑과 이해는 상호작용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아야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皮相的 理解가 아니다. 핵심과 근본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心中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해는 理致로 끝나는 뜻이요. 원리원칙을 안다는 뜻이다. 영어의 Understand는 그 어원이 밑에(under) 선다(stand)는 뜻이다. 우리는 사물을 이해하려면 결손한 마음으로 대상의 밑에 서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giving)이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준다.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아까워서 할 수가 없다.

사랑은 아까와 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무엇을 얼마큼 주느냐를 보고 얼마큼 사랑하느냐를 測定할 수가 있다. 적게 사랑하면 조금 주고 깊이 사랑하면 많이 준다.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正比例한다. 많이 주면 많이 사랑하는 것이요, 적게 주면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때에는 주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주는 것이 아깝기만 하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情誠을 주고 노력을 주고 모든 것을 아낌없

이 준다. 사랑하는 경우에는 주는 것이 곧 기쁨이요, 보람이요, 축복이요, 만족이다. 주고 나서 아깝지가 않은 것,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나는 그만큼 적어진다. 物理學的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사랑하는 경우에는 주고난 다음에 내가 더 풍성해 졌다고 느끼고 더 부유해 졌다고 느껴진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다. 주면 줄수록 나는 기쁘고 풍만감을 느낀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 받겠다는 의식과 의지를 떠나서 그냥 자꾸만 주는 것이 사랑이다.

나는 내 처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시간, 정성, 돈, 物質, 노력을 아낌없이 준다.

사랑이 極致에 도달하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친다. 殺身成仁은 사랑의 최고의 경지다. 사랑은 아낌없이 빼앗는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하여

- (1) 관심을 갖는 것이요,
- (2) 책임을 느끼는 것이요,
- (3) 尊重하는 것이요,
- (4) 理解하는 것이요,
- (4) 주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마음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다. 存在에 큰 변화를 가져 온다. 우리의 思考와 行動을 크게 변화시킨다.

사랑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관심을 안갖던 사람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책임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 강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 남을 존중하지 않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게 된다. 이해하지 않던 사람이 깊은 이해심을 갖게 된다. 남에 주지 않던 사람이 풍성하게 주게 된다. 사랑은 利己的 인간을 利他的 인간으로 만든다. 小我를 大我로 바꾼다. 응졸한 자아를 너그러운 자아로 변화시킨다.

폐쇄적 자아를 개방적 자아로 만든다. 사랑은 낡은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든다. 사랑은 존재의 혁명이다.

- 사랑은 인간을 크게 변화시킨다.
-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없다.
- 사랑이 있으므로 인생은 행복하다.